

AVENUE L

럭셔리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JULY 2010



SPORTS SPIRIT

Contributors



P. 208

Amir Zaki

사진작가 아미르 자키가 찍은 허공 위의 집. 처음 그것은 잔뜩 흐린 하늘에 박혀 기억 속의 어떤 풍경을 떠오르게 했고 기어이 기묘하면서도 친숙한 '내면의 방'을 고집어냈다. 하지만 그가 담은 일련의 사진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세워진 인명 구조 타워들. 그는 각기 다른 날에 사진을 찍고 하늘과 타워를 제각각 연결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이제 파도 소리와 사람들이 자아내던 여름 한철의 추억. 에디터로서 덕분에 '바다'를 사색하고 기억의 해변을 따라 걸었으니 고마울 따름. <에비뉴엘>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최근작을 선물해준 그에게 곧 뜨겁게 만개할 우리의 계절을 건네본다.



P. 148

이예녹

아름다운 섬 피지로 날아가 촬영한 뷰티 화보의 주역 중에 어찌 그를 빼놓을 수 있오랏. 그의 사진을 보고 모델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목소리를 들으면 성우일 거라고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는 헤어 아티스트다. 많지 않은 나이에 초고속으로 성장 중인 그의 비결이 뭘까 궁금했는데, 이번 작업을 함께 하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컨셉트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그만의 감각을 더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믿음직스러운 디자이너인 것. 그의 첫 로케 촬영을 <에비뉴엘>과 함께해준 것에, 또한 그의 200%의 준비성과 열정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P. 200

Rick Graham

릭은 '에코' 컨셉트로 진행된 캐나다 출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준 가이드. 일정 내내 성실하고 섬세하게 출장팀을 챙기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1년에 반은 일하고 반은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그는 사실 일하는 동안은 철저한 워커홀릭이면서도 남은 시간에는 운동을 즐기는 모험심 많은 자연주의자. 캐나다인 특유의 긍정과 여유의 힘으로 우리에게 진짜 캐나다를 보여준 그에게, 줄지애 'Coco'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줘 웃음을 선사한 그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단련시키는 그에게 승리의 행운이 깃들길!



P. 48

정명택

디자이너 정명택은 용수철 14개를 꼬아 의자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의자는 강철의 단단함을 지녔으면서도 흔들리고 출렁이는 탄성을 겸비한 것. 때문에 서로 만나서 꼬이고 헤어지는 데 망설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형태감까지 선물한다. '의도하지 못한 것을 의도하다(Expect the Unexpected)'라는 의자의 이름은 이 같은 용수철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잊고 지냈던 용수철의 비상. 아이디어로 충만한 작품을 통해 매번 새로움을 선사하는 디자이너답게 그의 이번 작품 역시 유머와 재기로 가득하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낯선 감각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P. 148

박이화

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이화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녀는 결코 신인이 아니다. 런던에서 무려 8년 동안 아티스트로서 맹활약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도 3년 전 런던에서다. 일본인인 줄 알았다가 한국인이라는 말에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해외 유수의 매체들과 작업해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은 물론이요 열정과 나이스한 에티튜드, 성격, 거기다 최강 동안 외모까지 두루 갖춘 팔방미인 그녀가 마침내 귀국했다. 함께 작업한 뷰티 화보 'Somewhere in Paradise'는 그녀의 '귀국 신고식 작업'이니 눈여겨봐 주시길.



(왼쪽부터) © 'Untitled (Tower 6)', Ultrachrome Archival Photograph, 60x76cm / 20x25cm, framed, Amir Zaki, 2009. © 'Untitled (Tower 42)', Ultrachrome Archival Photograph, 60x76cm / 20x25cm, framed, Amir Zaki, 2009. © 'Untitled (Tower 9)', Ultrachrome Archival Photograph, 60x76cm / 20x25cm, framed, Amir Zaki, 2009.

Bay Watch

수필가 A.M. 린드버그는 <바다의 선물>에서 소라게가 버리고 달아난 군더더기 없는 '집'을 보면서 뉴욕의 복잡한 인간 관계와 물건들로 가득한 자신의 집을 생각했다. 바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어느덧 버리는 삶을 배우고 '지금'과 '여기'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섬을 떠돌며 시를 쓰는 어느 시인은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라고 썼다. 그는 바다 냄새 그득한 시집에서 단순하면서도 명징한 시어를 길어 올렸으며 정신없이 노는 해변의 아이들, 허리 굽은 해녀의 맵시, 명하다가도 매서운, 고독하다가도 또한 한없는 바다를 품는다. 바다와 하나를 이루는 상념들, 기억들로 시를 버무린 것이다. 바다는 그렇다. 정신없이 머리칼을 휘감는 해풍에선 아무리 애써도 떼어낼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을 더듬게 되고, 어느덧 어깨높이까지 달려드는 파도에서는 무섭게 덮쳐오는 생의 파고 같이 두려워지며, 햇빛에 노곤해진 모래알은 권태의 빛깔을 닮았다. 그뿐인가? 유희지구의 가장자리로 물러나는 구름 한점에선 나보다 먼저 가 있는 그리움이 잊히고, 자줏빛 다발로 붉어가는 석양은 부끄럼도 모르는 마음 한구석 지그시 눌러준다. 독일 작가 유디트 헤르만이 단편 '허리케인'에서 그랬듯 여름 한철, 허리케인이 몰려오기 전 섬의 나날은, 바다의 풍경은 권태와 긴장이 교묘히 섞인 시간이기도 하다. 짙은 우울이 몽상을 뒤엎고 정박한 청춘의 머리칼에선

포장을 벗긴 채 놓아둔 사탕 같은 달착지근한 나른함이 묻어 있다. 어쩌면 바다의 그 같은 긴장과 유예된 듯한 시간의 감수성 때문에 사람들은, 말들은, 글자들은 그렇게도 자주 제 속으로 길을 잃는지도 모르겠다. 사우스캘리포니아의 해변, 그 긴 해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색과 형태가 다른 다양한 인명 구조 타워를 만난다. 바다를 정찰하고 파도와 영긴 사람들을 정찰하는 곳. 떠들썩한 대낮의 소음과 외로운 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 어쩌면 그곳은 바다를 가장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독방'일지도 모르겠다. LA를 떠나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 마을로 이사 온 어느 사진작가는 그 건축물의 기묘한 구조와 무심한 듯 지나치는 일상성에 주목한다. 모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는 혼자 건물을 올라다보며 사진을 찍었고 계단이며 램프, 사다리 등의 요소들을 모조리 지워버렸으며, 결국 텅 빈 하늘 속에 그것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바래거나 덧칠한 색, 여러 날 짙은 하늘과 거기 떠 있는 구름들, 날마다 달랐던 빛과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까지. 그는 어떤 날의 하늘과 바다를 찍지였으며, 어떤 날의 구름과 바람을 찍지였다. 그가 남긴 것은 공중에 갇힌 집 한 채지만 거기에는 사다리 아래 우글거리던 사람들이며 새겨지고 지워진 무수한 모래 발자국, 울고 웃고 껴안고 고향치던 실타래 같은 추억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기억 속의 바다가 늘 그렇듯이. **▲ 에디터 가낙경**

포토그래퍼 아미르 자키(Amir Zaki) 미국의 아티스트, 형태와 무늬를 대담하게 살린 나무며 이끼를 찍은 사진으로 이름을 알렸고, 차가우면서 단순한 건축물 사진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사우스캘리포니아 해변의 인명 구조 타워를 담은 'Relics' 시리즈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일상의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들 작품은 올해 1월과 2월에는 워싱턴의 제임스 해리 갤러리에, 5월과 6월에는 뉴욕의 페리 루벤스타인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현재는 UC 리버사이드(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미술학부에서 사진·디지털기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 최영희 문의 · 아미르 자키(amirzakiartcode@nc.com)